

데스크시각

조경완



요즘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의 따귀를 때리려는 찰나 수십개의 팔이 일제히 올라온다. 손에 손에 카메라 휴대폰이 들린 채로. 우리 교단의 권위 상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무릎 꿇린 채 울면서 잘못을 빌고, 매를 맞은 학생이 112로 신고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모든 권위가 깨지는 세상

권위가 무너진 곳이 학교 뿐일까. 검찰은 어떤가. 허위자백을 권유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보이스편에 고스란히 담겨 폭로되는 세상이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해당 검사를 징계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검사에게 정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판사는 어떻게. 폭력배와 골프를 친 게 드러나 사표를 쓴 판사는 오히려 양심적이다. 사법비리를 일소한다는 대법원장마저도 탈세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지낸 변호사도 사건수임 브로커들을 고용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어떤가. 고소득 탈세의 주범으로 몰린지 오래고 의료

權威의 파편더미 속에서

(권위)

법 개정을 반대하는데 이르러서는 의사집단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익집단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경제침체를 지킨다는 공적거래위원회도, 심지어 감사원 감사관들도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돼 소속기관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세상이다. 말리 갈 것 없다. 가정과 직장을 보라. 학기침 한번으로 집안의 분쟁을 잠재우던 가정의 권위는 이전 없다. 기업에서 간부들은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더 많다. 따지고 보면 지난 수년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상실되는 기간이자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파괴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탈 권위주의 과정이라며 당연시 하고 있다. 권위주의(權威主義·authoritarianism)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시스템이자 이데올로기다. 아도르노나 프롬같은 학자들은 교회나 왕정의 권위 붕괴를 예로 들며 "인간의 역사는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이라고 까지 단언한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유신 체제,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는 동안 끝

내 그 과정에서 모든 기성 권위는 '한국판 양시영 레전'이 되었고 그 파괴기간은 무려 20년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그 정점에 참여정부가 있다.

善한 권위를 다시 세우자

참여정부 5년은 후일 모든 권위의 파괴 시기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심지어 민주화를 통해 새롭게 수립된 권위인 정부와 대통령직에 대해서마저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을 뉘었다.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수사는 단지 교양이 부족한 대통령에 대해 '서울에서 오페라나 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위는 커녕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작동하는 정부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 아닌가. 쿠바식, 캄보디아식, 이란식 혁명을 거치지 않은 바에야 정권 담당자들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되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위를 보존해야 했다. 나아가 사라진 권위주의를 대체할 새 권위, 즉 선한 권위를 창출했어야 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새로운 선한 권위를 창출할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1년이라도 모든 당국(The Authorities)들이 최소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건 어떨까. <편집부국장>kycho@kwangju.co.kr

시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이대로 방치할 건가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대 대학원의 한 석사논문은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생의 약 20%가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7%는 고위험의 낮둥리가 아니다. 자기가 밝은 내각에 대해 '서울에서 오페라나 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위는 커녕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작동하는 정부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 아닌가. 쿠바식, 캄보디아식, 이란식 혁명을 거치지 않은 바에야 정권 담당자들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되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위를 보존해야 했다. 나아가 사라진 권위주의를 대체할 새 권위, 즉 선한 권위를 창출했어야 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새로운 선한 권위를 창출할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1년이라도 모든 당국(The Authorities)들이 최소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건 어떨까. <편집부국장>kycho@kwangju.co.kr

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 중독이 담배나 마약과 같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7%는 고위험의 낮둥리(낮잠을 자지 않는 청소년)가 아니다. 자기가 밝은 내각에 대해 '서울에서 오페라나 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위는 커녕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작동하는 정부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 아닌가. 쿠바식, 캄보디아식, 이란식 혁명을 거치지 않은 바에야 정권 담당자들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되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위를 보존해야 했다. 나아가 사라진 권위주의를 대체할 새 권위, 즉 선한 권위를 창출했어야 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새로운 선한 권위를 창출할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1년이라도 모든 당국(The Authorities)들이 최소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건 어떨까. <편집부국장>kyc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강대석



전남도에서는 도내에서도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급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지역발전 선도를 나갈 성장거점 사업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2010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나주의 공동혁신 도시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등 5대 신도시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은 천연자원연구와 차세대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광주근교권은 전원휴양 및 첨단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동

남부권은 동북아 물류 및 미래산업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축적된 자체 성장 동력을 뒷받침토록 하고, 서남권은 국제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역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의 조기 확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국고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있다. 급년도 정부 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SOC 투자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므로 점차 줄이고 사회복지비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대폭 늘린

낙후지역 SOC 투자 계속 늘려가야

부권은 동북아 물류 및 미래산업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축적된 자체 성장 동력을 뒷받침토록 하고, 서남권은 국제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역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의 조기 확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국고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있다. 급년도 정부 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SOC 투자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므로 점차 줄이고 사회복지비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대폭 늘린

남부권은 동북아 물류 및 미래산업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축적된 자체 성장 동력을 뒷받침토록 하고, 서남권은 국제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역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의 조기 확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국고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있다. 급년도 정부 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SOC 투자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므로 점차 줄이고 사회복지비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대폭 늘린

은평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평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1년내내 화장품 세일... 가격 불신 키운다

시내에서 화장품을 살 때마다 궁금한 점이 많다. 화장품 판매 업소마다 30~70%라는 실로 믿기 힘든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고, 세일 기간도 연중 계속된다. "이게 과연 진짜 할인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판 가격인데 아예 비싼 가격을 붙여놓은 뒤 싸게 파는 세일이라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가격이 엄연히 불어 있는데도 표시가격 따로, 판매가격 따로 이뤄진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정가는 과연 얼마인지,

누가 저 화장품을 제대로 주고 살까라는 생각에 구입할 때마다 항상 개운치가 않다. 시장 개방으로 수입산 화장품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상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 어떻게 할까. 서로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야말로 올바른 소비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정찰제를 실시 불신 없는 신용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기고

구영만



우리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의 제공되는 유틸리티(준공공재)에 있어서 제5원소는 무엇일까? 전기·수도·가스·통신을 네 가지 원소로 한정한다면, 여기에서 제외된 철도나 통신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5원소는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공공디자인'이 왜 '제5원소'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보다 광의의 개념인 '디자인'에 대하여 이해를 돕자면, '디자인'은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Design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조형'과 '계획'의 의미를 공유한다. 만약 디자인을 수혜자가 개인이나 대

에 우리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1988년 Mark Weiser가 처음 사용한 '유비쿼터스'는 '도처에 널려있다'는 의미임을 감안할 때 컴퓨터 분야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에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공공디자인'을 유틸리티의 제5원소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접하게 되는 가로시설물, 공원, 도시경관 등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인간공학과는 무관하게 혹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무시된 채로 난립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은 한 단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기·수도·가스·통신 등의 유틸리티는 사용자에게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공공 디자인 사업 더욱 확대해야

중이나를 기준으로 편의성 분류한다면, 각종 생활용품·의류·자동차·주거 등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공간에 담담하는 '프라이빗디자인'과 마을경관·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물·야간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공공디자인'으로 구분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디자인된 것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특허기술이나 아이디어 또는 사소한 도구 하나라도 디자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생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렇듯 디자인은 모든 제품과 생활공간에 심미성, 실용성, 경제성, 문화성을 가미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부과시키지만, 공공디자인은 많은 사용자가 만족하고 즐겨워하면 그럴수록 그 가치는 배가 되는 것이기에 더욱 더 중요한 원소인 것이다. 정부는 공공디자인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난 첫해의 소규모 단편사업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대규모 패키지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 시도보다 낙후된 이 지역의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공디자인'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관광상품으로 연계해오면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점 과장>

거동 불편한 할머니 배려 버스 승객의 행동 인상적

얼마 전 시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서 내리던 한 남자 승객이 다리 한쪽은 버스에, 다른 쪽은 길에 놓은 채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버스 기사가 "어서 내리라고" 화를 냈다. 모든 승객들이 짜증스러운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는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면 출발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앞을 보니 허리가 심하게 굽은 한 할머니가 '공' 소리를 내며 빈 자리에 앉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의 행동에 이해가 갔다.

그 남자는 버스에 올라타는 할머니를 보고 차츰 시내 버스 운전사가 할머니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할 것을 우려해 그같은 일을 한 것이다. 몸도 불편한 할머니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는 힘들다. 그 남자의 사려 깊은 행동이 인상적이었다. 급히 움직이는 버스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승객을 여러번 보면서 오죽하면 이런 손님까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니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각성이 필요할 듯 하다. <주정원·광주시 서구 벽진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해리스 인너텔티브-월스트리트저널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8회째인 올해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전년 7위에서 1위로 경쟁 뛰어오르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MS가 7년간 1위를 고수해온 존슨앤드존슨을 밀어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한 왕성한 자선 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단순한 실적 이외에 회사 또는 경영진의 사회공헌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이 그 기업의 명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표준화기

이에따라 오는 2009년 말이면 국제표준이 제정되게 된다. 사회적 책임 표준제정의 핵심 논의대상은 환경과 인권, 노동관행, 조지 지배구조, 긍정적인 운영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등 7가지다. ISO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각각 5차와 6차 총회를 연 뒤 2009년 11월에 ISO 26000을 발간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ISO)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지어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을 제정한다 해서가 아니라 국제에 우리 사회 전 부문에 배려와 나눔을 생활화하는 운동이라도 벌이면 어떨까 싶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대표전화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광고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편집부	2200-551
경제부	2200-61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체육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 1부	2200-618	시업 2부	2200-552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